

2024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주요 중점들 —

갈라디아서

메시지 13

그 영을 따른 두 종류의 행함

성경: 갈 5:16, 25

- I.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세우시고 그분의 목표에 이르러자 하시므로, 그 영을 따른 두 종류의 행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다. 그것은 곧 합당한 일상생활을 세우는 행함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세우신 목표에 이르는 신성한 규칙들과 원칙들이 있는 노선 안에서의 행함이다 — 갈 5:16, 25.
- A. 16 절의 ‘행하십시오’에 대한 헬라어 ‘페리파테오’는 매일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함을 가리킨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움직이고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으로서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매일 행하는 것을 암시한다 — 롬 6:4, 8:4, 빌 3:17-18, 골 2:6, 비교 영한 동변 찬송 1048 장.
1. 그 영을 따른 첫 번째 종류의 행함은 우리가 주님과 한 영 안에서 하는 행함이다. 우리는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우리의 체험에서 주님과 한 영 되어야 한다 — 고전 2:9-13, 6:17, 살전 5:16-18.
 2. 그 영을 따른 첫 번째 종류의 행함에서 우리는 그 영을 우리의 삶의 본질로 취한다(갈 5:16 상). 우리가 그 영을 우리의 본질로 취하고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갈 5:24), 우리의 매일의 행함의 모든 방면은 그 영을 따르게 될 것이다 — 영한 동변 찬송 493 장 5 절.
 3. 우리가 실재와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반드시 그 영을 따라 행해야 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아야 한다 — 갈 3:26, 4:6, 롬 8:14.
 - a. 우리가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들이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 영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근거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근거 위에 서야 한다 — 갈 4:4-6.
 - b.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자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우리 속에서 일하시므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 — 갈 3:26, 5:16.
 4. 육체는 세 부분으로 된 타락한 사람이 극도로 표현된 것이고(창 6:3), 그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실재화되신 분이시다(요 7:39).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영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배를 받은 우리는 육체, 곧 우리의 타락한 존재를 따라 행하는 대신, 그 영,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따라 행할 수 있다(갈 5:16, 24).
 5.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영을 따라 살고 행하고 처신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영의 열매, 곧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자제”를 갖게 될 것이다 — 갈 5:22-23, 비교 마 12:33-35.
- B. 갈라디아서 5 장 25 절의 ‘행함시다’에 대한 헬라어 ‘스토이케오’는 공식적인 행함,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함을 가리킨다. 이것은 특정한 규칙, 곧 줄을 지어 걷는 것, 군대 대열로 행진하는 것, 보조를 맞추어 걷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질서 있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갈 6:16, 롬 4:12, 빌 3:16.
1. 그 영을 따른 두 번째 종류의 행함, 곧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한 행함을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길과 규칙과 원칙인 그 영을 따라 행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 영을 따른 두 번째 종류의 행함은 그 영을 우리의 대로로 취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에 이르기 위한 행함이다.

2.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16절은 “이것은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 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 a. 옛 창조물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엡 4:22), 곧 출생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타고난 존재이며,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없다. 새 창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사람, 곧 그 영으로 거듭난(요 3:6) 우리의 존재이다. 이 새 창조물은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3:36, 벵후 1:4), 그리스도가 조성 성분이 되어(골 3:10-11) 새로운 조성체가 된 것이다.
 - b.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것은(갈 6:15) 그 영을 따른 두 번째 종류의 행함이다(갈 5:25). 우리가 따라 행해야 하는 규칙은 새 창조물이 되는 규칙이다(고후 5:17).
 - c.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 믿는 이들과 유대인 믿는 이들을 포함하는 참된 이스라엘(롬 9:6 하, 2:28-29, 빌 3:9)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종류의 행함이 필요하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갈 3:7, 29)이고 믿음의 가족(갈 6:10)이며 새 창조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 d. 우리는 ‘이 규칙’, 곧 새 창조물의 규칙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 왕들, 곧 사탄과 죄와 죽음에 대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들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집행한다. 그들은 야곱으로 예표되는데, 야곱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왕자와 승리자로 변화되었다 — 롬 5:17, 창 32:27-28.
 - e.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두 번째 종류의 행함이 필요함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며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이다 — 계 5:10, 11:15, 20:4, 22:5.

II. 하나님의 목적, 곧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우리에게서 그 영을 따른 두 번째 종류의 행함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 종류의 행함을 수행하려면 우리에게 첫 번째 종류의 행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 영을 따른 첫 번째 종류의 행함은 두 번째 종류의 행함, 곧 목표를 향한 방향을 가진 행함을 받쳐준다 — 갈 5:25.

- A. 우리에게 그 영을 따른 첫 번째 종류의 행함만 있고 두 번째 종류의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거룩’하거나, ‘영적’이거나, ‘승리’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상 목적이 없게 될 것이다.
- B. 그 영을 따른 합당한 매일의 행함은 그 영을 따른 두 번째 종류의 행함, 곧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행함을 위해 우리에게 자격을 주고 장비시킨다. 그 영을 따른 첫 번째 종류의 행함은 합당한 일상생활을 세우고, 두 번째 종류의 행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에 이르는 신성한 규칙들과 원칙들에 일치하는 행함이다. 이 두 종류의 행함은 서로 유기적이고 내재적으로 연관된다 — 고전 9:24-27.
 1. 우리가 그 영을 따른 두 번째 종류의 행함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고전 15:58, 16:10), 반드시 그 영을 따른 첫 번째 종류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주관적인 데서 구원받을 수 있다.
 - a. 주관적인 사람은 주님께 무언가를 들은 후에도,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사안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밝힌 후에도 자신의 판단을 고집한다. 주관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번도 과쇄된 적이 없는 자아이다.
 - b. 주관적인 사람은 다른 이들의 말을 들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주관적인 사람에게 와서 좌절한 것에 말하고 그에게 짐을 내려 놓으려 해도 그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의 의견이 난공불락의 요새이고 그의 생각이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 c. 주관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안내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의견과 길과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경청하는 귀를 가진 유순하고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 시 32:8-9, 사 50:4-5.
 - d. 주관적인 사람은 말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말하려는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다. 그는 자기 뜻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고 자기 생각으로 다른 이들을 지배하기를 좋아한다.

- e. 신실한 사람은 주님께 받은 위임을 말해 내야 하기 때문에 말하지만, 주관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이들이 자기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일에서 다른 이들을 통제하기를 좋아한다. 그는 자신의 방법이 으뜸이고 최선이며, 자신의 길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2.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교만을 처리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영을 따른 첫 번째 종류의 행함을 가져 그 영을 따른 두 번째 종류의 행함을 가질 수 있다.
 - a.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 위에 군림하지 않을 것이다. 군림하는 것은 교만의 강한 표시이다 — 벰전 5:3.
 - b. 하나님의 은혜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벰전 5:5 하.
3. 빌립보서 1 장 22 절에서 바울은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것이 나의 일에 열매가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면, 나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한다.
 - a. 바울이 ‘열매’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그의 일이 사실상 그의 생활이었음을 가리킨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서 살았지만 그의 살아 있는 일은 그리스도를 살아 내고 확대하고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일의 열매는 그가 확대한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 안으로 옮겨보는 것이었다.
 - b. 24 절과 25 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육체에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한다. ‘진보’는 생명의 성장을, ‘기쁨’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 c. 우리가 그 영을 따른 첫 번째 종류의 행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해 그분을 산다면 우리는 공급의 요인들과 통로들이 되어 성도들이 그 영을 따른 두 번째 종류의 행함에 따라 생명 안에서 자라고 주님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다.
4. 바울이 그 영을 따른 첫 번째 종류의 행함에서 은혜이신 주님을 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 영을 따른 두 번째 종류의 행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맡기실 수 있었다. 우리는 계속 은혜의 넘치는 공급을 받는 바울의 본을 따라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다 — 고전 15:10, 고후 12:7-9, 엠 3:2, 롬 5:17, 벰전 4:10.
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하면서 주님과 한 영 된다면 습관적으로 자아를 부인할 것이고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다.
 - a. 우리가 그 영을 따른 두 번째 종류의 행함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아에서 나오거나 자아에 의한 어떤 것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 영을 따라, 새 창조물을 따라 행해야 한다 — 마 16:24.
 - b. 자아는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포하는 혼이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존중하지 않으신다. 그보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존하는 것을 존중하신다 — 마 7:21-23, 비교 수 9:14.
 - c. 바울은 습관적으로 자아를 부인하는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고후 4:5)한다고 선포할 수 있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배웠다(고후 1:8-9).
 - d. 우리가 그 영에 따라 행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자아를 부인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그리스도의 온 몸이 섞이는 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 고전 12:24-25, 롬 16:1-24.